

건강 칼럼

뇌졸중 치료에 대해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암 외에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원인인 뇌졸중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큰 후유증을 보이며 이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도 크다.



김재수
굿모닝병원 신경과 전문의

▲응급치료
뇌졸중에 의한 뇌의 손상 부위가 매우 크거나 뇌간 등 중요 부위에 병변이 있을 때 숨을 이상하게 쉬거나 잘 못 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인공적으로 기관지에 튜브를 삽입하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가래를 빨아주는 등의 기도유지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으로 인해 뇌 안에 피가 고이거나 뇌혈관이 막힌 후 병변 부위에 뇌부종이 생겨 뇌압이 오르게 되면 부은 뇌 조직이 점차 뇌간의 중요 부위를 누르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뇌압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약제를 투입한다.

▲허혈성 뇌졸중의 치료
뇌졸중은 응급치료 외에 다음과 같이 치료를 하되,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킨 원인 증세의 경중 및 진행

양상, 환자의 상태 등을 보아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한다.
△항혈소판제- 혈전의 생성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혈소판제제를 투여한다.
△항응고제- 헤파린이란 주사약이 가장 잘 알려진 항응고제로서 심장 질환에 기인한 뇌색전증,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빈발하는 경우 등에 피의 응고 현상을 저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혈전용해제- 뇌혈관이 막힌 지 수 시간 이내의 환자는 즉시 혈전용해제 투여하여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임으로써 혈관을 뚫어 줄 수 있다. 뇌 조직은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 불과 수 시간 이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므로 이러한 시간대 이내에 혈류를 재개시켜 뇌 조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수술치료- 서양에서는 경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해 심하게 좁아져 있을 때 이를 수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는 막힌 부위가 좀 더 위쪽의 두개강 내의 혈관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수술을 하는 환자는 매우 적다.

▲출혈성 뇌졸중의 치료
우리나라에서 출혈성 뇌졸중의 대부분은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 뇌출혈이다. 이 경우 혈압조절, 뇌압 조절 등의 응급치료가 중요하다. 최근 가느다란 튜브를 두개강 내에 꽂고 고인 피를 빨아내는 수술치료도 시행되는데 이 방법이 약물치료보다 확실히 더 좋은 것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적절한 약물을 치료에도 불구하고 점차 나빠지는 환자, 또는 출혈 양이 많은 환자에

게는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다. 출혈성 뇌졸중 중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것은 지주막하 뇌출혈의 경우다. 이 원인은 대부분 큰 동맥에 생긴 파리 모양의 동맥류가 터지기 때문인데 수술하여 이 동맥류를 없애야 재출혈의 위험이 없으므로 혈관조영술로 동맥류의 위치를 확인한 후 수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도 수술한다. 동정맥기형이 너무 길거나 중요한 부위에 위치하여 수술하기 곤란할 때는 첨단 장비인 감마나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재활치료
일단 급성기의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재활치료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는 재활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한 후 증세의 경중에 따라 병실에서 환자의 관절, 근육들을 수동적으로 운동시켜 주는 것부터 시작해 물리치료실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한 체계적인 운동,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훈련, 언어치료 등을 수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증상이 남아 있는 한 계속해야 하므로 퇴원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사설

일자리 다운 일자리 더 늘려야

전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 방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제 앞으로의 일이라해도 지금부터 면밀하게 플랜을 짜야 한다. 도내에는 여전히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관철은 일자리가 늘기는 고사하고 비정규직만 늘고 있으니 말이다. 분명히 그래서일 것이다. 정규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시간제 일자리만 늘고 있으니 안타까운 세월이다. 현실과 희망이 같은 방향으로 상충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유감이다. 그래서 다시 전북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시 취업자들도 버리는 비는 한결같다. 그것은 바로 정규직 일자리이다. 그런데 그 정규직 일자리와 고용안정이 결과적으로 식언이 되고 있다.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닐 터인데 피부에 와 닿는 실감이 없으니 문제이다.

기간제 일자리만 늘어선 말이 안된다. 얼마 전에 도내 근로자의 39%가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는데 지금은 40%를 훌쩍 넘었으리라는 짐작이다. 고용 구조의 현실이 이런데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는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지역 일자리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하거나 생색 수준의 비정규 일자리만 내놓는 것은 생각할 문제이다. 그런데 암담한 것은 공무원 사회만이 아니다. 건설업종이며 서비스업종 외에도 도내의 거의 모든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줄고 있는 관에 고용의 질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호소는 그래서 나오고 있다. 현실이려면 전북도는 다방면으로 분발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각 시군 지자체들도 함께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장래를 걱정해보라는 것이다.

전북 탄소산업 갈 길이 멀다

탄소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요즘이다. 저번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에 설립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잠잠하다. 전북의 탄소산업은 더욱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는 갈 길이 멀다고밖에 다른 할 말이 없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의 힘을 계속 키워야 한다. 그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내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전북의 탄소산업 역사는 길다. 그런데 현주소가 답답하다. 야심 차게 추진해온 역사가 오래인데도 크게 표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왔지만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은 그래서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에 두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후발주자 지역인 다른 광역자치체가 흑어 욕심을 품고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북 탄소산업의 역사가 오래인데도 그 발전상이 미흡하다는 것은 곧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을 야기한다. 10여년 세월의 공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탄소 소재 및 부품

분야 육성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기업군 형성이 안되면 상용화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탄소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려면 대략 난감이다. 어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전북의 탄소산업에 대해 이대로 관망하고 하니 물어볼 수가 없는 오늘날이다. 백년먹거리 사업이라며 홍보할 때만해도 관련 기업 240개 유치와 1만5천명의 고용 창출을 말했었는데 말이다. 여기 다시 말하거나 전북탄소산업의 갈 길은 멀다. 탄소산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실망스럽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창출 성적이 기대했던 것에 한참 못미치고 있으니 말이다. 효성 공장이 2013년에 준공할 때만해도 2020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2020년까지라고 했으니 그 기한이 2년 4개월 정도 남아 있기는 하다. 그래도 약속한 그때까지 그 액수를 온전히 투자할 지가 미덥지 않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우리 지역의 탄소산업에 더욱 탄력을 주어야 한다. 탄소산업진흥원도 우리 지역에 두도록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독자제언

고령화 사회, 노인 교통사고 대책 시급

우리나라는 해가 지날수록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2030년에는 그 비율이 약 20%까지 상승하여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형태로 형성 될 예측도 나오고 있다. 사망 교통사고 수치는 OECD국가 중 해마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행자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 절반이상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 중 보행자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보행속도 및 인지반응시간 저하, 주의능력 감퇴 등 신체적 특성 변화

에 따른 사고 위험성 증가와 노인을 고려한 도로나 교통안전시설 미비 등도 노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노인교통사고 대책으로 첫 번째는 노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공원, 경로당, 양로원 등을 실버존으로 정하여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해야한다. 교통사고 심각성을 노인에게 알리고 사고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안전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노인교통사고는 한 개인의 힘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 시민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서 어르신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관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자원봉사에 감사라

출근길 도심 초등학교 주변을 운전할 때면 녹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어머니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의 길 건너기를 도와주고, 교차로에서는 모범운전자들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 녹색어머니회 회원과 모범운전자들은 부족한 교통경찰인력을 대신해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통보조 인력이다. 녹색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장비라고 해 봤자 앞치마와 모자, 깃발이 전부인데도 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한다. 모범운전자들은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 장을 받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나선 분들이다. 이들은 아침에 등교하느라 정신없고 산만한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차량 진행을 잠시 막고 있다가 차량을 소통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잠깐의 시간을 못 기다려 경적을 울려대거나 급출발을 하는 등의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녹색어머니회원과 모범운전자들은 학부모인 동시에 가정주부와 아버지들이다. 그들도 아침에 가족을 챙기느라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모쪼록 등하갯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회원과 모범운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들의 신호에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자.
오재복 원산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장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